

모든 사람들은 본래부터 세 가지 대사(大事)를 구비하고 있다. 곧 생대사인연·사대사인연·일대사인연으로서 흔히 생사일대사인연이라고도 한다. 이런 가운데 일찍부터 선문에서는 생과 사의 문제가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사에 운회하는 문제를 초월하려는 것이 최대의 문제로 생사사대(生死大事)가 취급됐다.

이것은 오조홍인이 제자들을 제정할 경우 활용하던 문답이기도 하다. 문황본 <단경>에서는 홍인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간의 사람들은 생과 사의 문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늘상 인간과 천상의 복전만 추구하기 위하여 공양할 뿐, 세간의 생과 사로부터 도통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홍인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홍인에게는 그것이 곧 생대사와 사대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대사의 인연이었다. 생사의 문제는 생과 사 그 자체로서도 대사(大事)의 인연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가르침이 곧 일대사(一大事) 인연이다. 따라서 삼대사인연(三大事因緣)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깨쳐야 하는 과업으로서 외면해서는 안 되는 본참화두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대사인연(生大事因緣)을 구명해야 한다. 생대사인연은 곧 자신



불자 세상보기

김 호 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삼대사인연은 본참화두

이 태어나기 이전의 문제로서 분별심이 형성되기 이전의 순수한 자신의 본래모습을 터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신은 육신의 자신이 아니라 아상(我相)이다.

또한 사대사인연(死大事因緣)은 생전의 성장과 교육과 늙고 병들어가는 개개인의 온갖 행위로부터 영원한 이별의 모습이다. 출생하면서부터 늘상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백 년의 삶이 모두 몽환적이고 허공의 꽃과 같아서 세월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다가 맞이하는 모습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대사인연과 사대사인연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어떤 것임을 파악하는 것이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이다. 곧 출생과 삶과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필연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깨치는 것이다. 그것은 생대사와 사대사의 무상한 모습과는 달리 일심불성(一心佛性)의 도리야말로 성인과 중생에게 차별이 없고, 예와 지금과 미래에도 차이가 없으며, 법에도 이법(二法)이 없고, 불에도 이불(二佛)이 없다.

단적으로 말하면 좌선(坐禪)이고 진여(眞如)이며 열반(涅槃)이고 원각(圓覺)이며 묘법(妙法)이고 일물(一物인 '거시기'이다. 이것을 깨치는 것이 사대사인연이다.

생대사와 사대사의 현실에서 자신을 일깨워 일대사인연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살도의 실천이다. 때문에 보살도는 생로병사에서 시시각각으로 서원하여 발심하고 좌선하여 수행하며 자각하여 증득하고 열반하여 교화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이러한 보살도는 모든 사람이 늘상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다. 이에 중생은 반드시 자각해야 한다. 그 자각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제불의 불법이 출현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미 제불의 일대사인연은 생대사인연과 더불어 완성돼 있었다. 사대사인연 또한 생대사인연 이전에 갖추어져 있었다. 때문에 생(生)과 사(死)와 일(一)의 분별적인 입장을 벗어난 삼대사인연(三大事因緣)이 곧 일대사인연이다. 그 실현은 오직 생대사인연은 번뇌의 분별이 일어나는 줄 알아차리고, 사대사인연은 팔만 사천 번뇌가 본래 공한 줄을 터득하며, 일대사인연은 생대사와 사대사가 별개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본분사였음을 일깨우는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 핫뉴스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충청지사 : (043)732-5560 부산지사 : (051)632-0064
 전북지사 : (063)910-8977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월의 테마-세출발

2010년 새해가 밝았다. 연하장에 쓰여진 '송구영신(送舊迎新)'이란 말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새롭다는 말이 단지 옛것과 다른 차별을 뜻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의 발전과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리라.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인 제행무상(諸行無常)의 도리에 따르면, 새 출발은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상(지금 여기)에서 계속 변화하며 반복되고 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순간순간이 새로운 뿐이다.

<출요경>에는 “과거에 악을 저질렀어도 선한 행동으로 그것을 없애면 구름 사라진 뒤의 달과 같다”는 말이 있다. <성경> 가운데 ‘요한복서’와 ‘베드로서’ 등에서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의로움이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얽매이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선한 행동과 의로

“네 꿈을 자신 있게 펼쳐보지 않겠나?”

움을 행하는 것이 새로움의 시작이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가져온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현대는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된 시대로 하루하루가 급변한다. 사람들 모두 순간순간 숨 가쁠 정도로 바빠 살아가며 그 삶 속에서 자신을 추스르고 정리하기는커녕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반성 없이 욕망만 키우는 생활 습관은 살기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스트레스로 큰 짐이 되어 양쪽 어깨를 누르는 등 병이 된다. 욕망과 욕구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스트레스는 결국 그것이 원인이 돼 우울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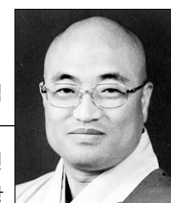
특히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은 새로움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려움과 망설임이 북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도고마성(道高魔盛)과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 할 때 나타나는 장애물로 볼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요소이다.

불가에서는 이런 것의 치료처방으로 서로 원결을 맺지 않도록 하며, 믿고 신뢰하는 선연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가르친다. 불전 <아함경>에도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감음으로써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의 해부학자 레오나드 헤이플릭(Leonard Hayflick)이 인체를 구성하는 수조개의 각종세포마다 다른 수명한계(인간의 세포는 약 70-100회 정도 분열한 뒤에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멸한다)가 있어 사라지고 새로 생성된다는 DNA메카니즘을 발견하였다. 이는 인체구성 기본 단위인 세포도 삶과 죽음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항상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서정희가 부른 ‘작은 새의 꿈’이란 노랫말을 다 같이 음미해보면서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움을 경험할 새 출발을 하자! “그대 세상은 너를 위해 존재한 거야. 네 꿈을 한번 자신 있게 펼쳐보지 않겠나?”



도각 스님
태고총무원
중주조정실장

社說

공덕 중의 공덕 ‘법보시’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법보시 공덕’이 가장 으뜸가는 공덕이라 했다. 법을 보시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깨침을 보시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전생담에서는 한 구절의 경구를 듣기 위해 온 몸을 바치는 일화도 나온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가르침을 기록한 책자를 보시하는 일이 아주 귀한 일이었을 것이다. 책자가 아니더라도 통신문이 없던 시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술해 주는 사람은 또 얼마나 중요하게 대접받았겠는가? 법보시란 법을 전해주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그 속에는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큰 원력이 담겨 있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탄허 스님이 현토한 <대방광 불화엄경>이 매우 정성스럽게 묶여졌고 그 책자가 세계 유수의 도서관과 석학들에게 보시된다고 한다. 법보시 치고는 매우 귀한 법보시다.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 정성스럽게 장정된 경전이 세계로 법보시 된다는 것은 법보시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임에 틀림이 없다.

인자가 발달하고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법은 무너진다고 했다.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익이 사람으로 하여금 탐욕과 나태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경전을 세계로 내보낸다는 것은 그 자체의 상징만으로도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새로운 성과일 것이다. 이 거룩한 불사를 추진한 회통사의 원력으로 온 불자와 국민에게 최상승공덕이 회향되길 바란다.

거꾸로 가는 문화재 보호정책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행정편의의 주위에 몰려 있다. 4대강 개발을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최근 마련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기존의 법이 유지하고 있던 ‘까다로움’을 벗어던졌다.

3인 이상의 심의 규정이 없어지는 등 공사주체에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 말은 곧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이 쉬워졌다는 의미다. 물론 쉬워졌다는 것은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재 보호정책이 개발우선주의에 밀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국보 제1호 송례문을 화마에 빠뜨린 나라가 스스로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좀 더 강한 법으로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개발편익을 슬쩍 손들어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민원해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민원우선정책을 적용할 것과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가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물론 사찰이나 문화재를 소유한 입장에서 보면 이 기준이 현실적인 편익을 주는 게 사실이다. 생활 편의 시설의 확장이 절실해도 문화재 인근이라는 이유로 막았던 경우 등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문화재는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 적어도 국가지정 문화재는 역사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 이상의 국민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번 허용기준이 좀 더 원론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길 바란다.